

# “치매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 전주시보건소, '치매가족 지지 프로그램' 운영...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전주시보건소 치매상담센터 교육실에서는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관내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매가족 지지 프로그램은 △치매 이해하기 △나 자신 치유하기 △소통하기 △즐겁게 생활하기 △어우러져 살기 △미래계획하기 등의 내용으로 꾸며진다.

또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원예활동 프로그램 등 치매에 대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 2월달 기준 전주시 65세 이상 인구(79,532명) 중 치매 추정 인구는 전체 노인인구의 9.1%인 7,237명이며 치매상담센터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8,44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보건소는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의원 28개소를 지정해 치매무료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 60세 어르신의 경우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되면 치매치료관리비를 매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치매상담센터장은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도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치매상담센터(281-6291~5, 62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 전주 완산구, 오목대길 '친환경 식생매트' 로 정비

완산구는 전주시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목대 오르막길 200m 구간을 친환경 식생매트로 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한옥마을 관광객들의 필수 탐방코스 중 하나인 오목대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황토로 포장된 오르막길이 우천시 진흙탕으로 변해 불편함을 겪어왔다.

완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옥마을과 연계된 주변 관광지를 '전통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환경'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 전주시 인후2동, 해피하우스 현장방문 격려

인후2동에서는 4일 관내 단독주택의 관리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해피하우스 사무실을 찾아 근무여건을 점검하는 등 현장방문 격려에 나섰다.

이날 현장방문은 노후화된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홀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관내 상황에서 대장기구를 직접 방문에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해피하우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마련됐다.

엄익준 인후2동장은 “우리 지역은 노후된 주택들이 많아서 도움의 손길이 특히 많이 필요한 곳이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찾아 해피하우스와 연계한 동네복지가 일선에서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 남문지구대, 전동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전주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는 최근 전동휠 대여업체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도 늘고 있어 전동휠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남문지구대는 전동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수칙을 정리한 안내문을 제작, 전동휠 대여 사업자와 관광객을 상대로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안내문은 무면허 운전 시 도로교통법 80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인도주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여업체의 경우 대여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해야 하며, 무면허 운전을 방조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인진수 기자

### 군산시 임피면, 봄철 산불예방 순찰 강화

군산시 임피면은 4~5월에 집중되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특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순찰활동 강화와 함께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임피면은 청명·한식을 전후해 성묘객들의 실화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돼 관내 산불 취약지역과 위험지역 순찰강화와 공원묘지·화장장 내방객에게 산불방지 계도활동을 벌인다.

특히 허가 없이 논·밭두렁 및 산림인접지역 소각금지 등을 적극 홍보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임피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계도활동도 강화하고 나섰다.

또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감시원은 즉시 신고해 진화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초기진압에 임하는 등 무리한 자체 진화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산불현장은 소방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시설물 보호와 주민 대피 등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우선토록 했다.

전종신 임피면장은 “묘지 분포가 많은 임피면의 특성상 청명·한식날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도로 산불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무주군·전국재해구호협회, 안성면 등 5개 읍면 세탁봉사활동

무주군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31일부터 4일간 무주읍과 적상면, 설천면, 무풍면, 안성면에서 세탁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이상 기후로 인한 가습적인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을 봉사 팀으로 구성해 재난취약계층인 위기가족(독거노인, 장애인, 조손가족, 저소득층) 총 300세대의 겨울 옷가지와 이불빨래를 비롯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침구류 세탁활동을 펼쳤다.

군 사회복지과 최병현 희망복지담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추진한 세탁봉사활동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이재민 구호 서비스를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재민 구호와 연관이 있는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 관할 읍면이 함께 뜻을 공유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경찰서, 숨은 일꾼 8명 서장 표창 수여식

장수경찰서는 4일 오전 2층 회의실에서 확대회의에 앞서 1/4분기 숨은 일꾼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은 경찰서장, 각 과장 및 계·팀장과 과장출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업무 우수 유공 경찰관에 대해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수여받은 경찰관은 112종합상황실 경감 복중진,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현철, 장계파출소 순경 최승현, 정보경계계 경위 김종민, 천천파출소 경위 양승진, 수사지원팀 경장 유영신, 교통관리계 박지희 순경과 정보경계계 김윤국 일경 등 경찰관과 의경을 포함해 총 8명이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각각 112메뉴얼평가 우수, 4대약 근절 우수, 절도범 검거와 교통패대로 징수를 우수 유공이다.

표창을 수여받은 장계파출소 최승현 순경은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4월의 첫주에 선배님들을 대표해 숨은일꾼 표창을 받게 되어서 영광이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중섭 장수경찰 서장은 “표창을 수여받은 직원들 뿐만 아니라 각 기능에서 맡은 업무에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숨은 일꾼들을 적극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부안농협·고향주부모임, 어르신 40명 모시고 효 나들이

부안농협·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이 관내 70세 이상 4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효 나들이 여행을 다녀와 경료호출인 사상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일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부안 농협과 고향주부모임회 10명의 회원들이 효 나들이 여행을 몸이 불편하지만 같이 동행하면서 서로 이끌어 주며 온전에서는 심신의 피로를 풀어드렸다.

김원철 조합장은 “고생하신 고향주부모임회원들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훈훈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4명 김승수 전주시장 초청으로 시청 방문

지역사회로 복귀를 준비하는 전주시 탈 시설 장애인들이 전주시청에서 봄나들이를 즐겼다.

전주시는 탈 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너티나무1호 이용 장애인 4명이 김승수 전주시장의 초청으로 전주시청을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김승수 시장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듣고 소통하기 위해 관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탈 시설 공동생활가정의 거주인들 4명을 시청으로 초대하면서 이뤄졌다.

탈 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전주시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시설 장애인에게 사회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에서 4명이 함께 생활하는 주거형태다. 현재 너티나무1호를 비롯해 총 8개소에서 3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탈 시설 공동생활가정은 그간 장애인시설에서 거주하며 수동적으로 살아야 했던 장애인들에게 사회 적응훈련과 일상생활체험 및 직업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계자는 “장애인지원정책은 소규모 탈시설화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모처럼 봄나들이를 나온 장애인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 전주시는 이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 덕진소방서 119구급대, 장애인 투표 편의 지원키로

전주덕진소방서는 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투표 편의를 돕기 위해 119 구급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선거 당일과 사전투표일인 8~9일 구급대 10대를 동원해 장애인과 노약자, 거동 불편자 등을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이동시키고 투표권 행사를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표 편의를 제공받길 희망하는 장애우 및 거동불편자는 선거 전날인 12일까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32)로 사전약약을 신청하거나, 선거당일은 현장대응단(250-4250)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진수 기자

<b>전주매일</b>		www.jmaeil.com	2009년 1월 23일 등록(월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150-9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세·노·음)
<b>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b>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지	중앙지사	남원지사	고창지사
010-9895-4113	246-6865	632-3396	568-6398
남원지사	순천지사	완주지사	진안지사
010-2333-4791	255-2404	246-6665	433-3064
서산지사	고창지사	남원지사	정읍지사
272-9417	446-1657	632-4986	538-3787
호주지사	익산지사	순창지사	장수지사
010-9895-8935	889-9933	663-0444	010-382-2919
		부안지사	무주지사
		584-0422	010-210-026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